

## ‘그리고’ 연구

강우순  
(경희대학교)

**Kang, Woosoon. 2005. A Study on ‘kuliko.’** *Linguistic Research* 22.1, 1-15.  
This paper examines ‘kuliko’ in Korean and shows how we can treat this word in the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The work ‘kuliko’ has a function to connect the same categories. In this aspect, it has the same function ‘and’ in English. However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kuliko’ does not connect anything in surface structures. If we assume invisible conjuncts for the sake of coherence, we encounter the problem that the conjuncts could not be the same categories, which means that we have to admit the coordination of the different categories. So I argue that the word ‘kuliko’ should be treated as both a conjunction and an adverb depending on the context, which we can recognize from the surface structure. If we separate the categories of ‘kuliko,’ we don't need to add any kind of rules and constructions to the present rules and constructions. We don't have to add any kind of invisible categories either. This analysis can be applied for ‘kulena,’ ‘kulemuro,’ and similar word forms.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kuliko' in Korea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invisible conjuncts, a conjunction and an adverb depending on the context

### 1. 서론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의 ‘그리고’를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의 연구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론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졌다. 그러한 연구들은 각각 따로 나누어져 있다.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은 통사와 의미, 화용적인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문법이므로 앞선 연구들을 통합하여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리고’의 통사적인 부분과 ‘그리고’를 이 문법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은 각각의 형태에 대해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에 따른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하는 문법이다. ‘그리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이나, 규칙, 원리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유형과 규

칙, 원리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2. 앞선 연구

앞선 연구는 통사론적 연구, 의미론적 연구, 화용론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그리고’의 고찰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sup>1</sup>

### 2.1 통사론적 연구

통사론적 연구로는 임유정·박동호·홍재성(2001)과 장정줄(1983), 남기심(1985) 등이 있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문법 범주를 연결할 수 있다.<sup>2</sup>

- (1) a. 명사 그리고 명사  
    준서 그리고 경하
- b. 문장 그리고 문장  
        은서 어머니 신애는 전교 일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반 부반장이구요.
- c. 동사 그리고 동사  
        여기서 은서 씨하고 사는 것도 혼자 결정하구 그리고 은서 썬 친척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 d. \*관형사 그리고 관형사  
        이 그리고 저 사과
- e. 부사 그리고 부사  
        그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뛰어 갔다.

(1)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범주는 핵어 역할을 하는 명사, 동사, 부사 등의 범주임을 알 수 있다.<sup>3</sup> 영어의 ‘and’와 같이 분석할

<sup>1</sup> ‘그리고’의 사용도 많았으나, 구어체가 많으므로 ‘그리구’의 사용도 많이 있었다. ‘그리구’라고 발음하는 것은 중음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구’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서로 관계가 친밀한 경우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에 상관없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sup>2</sup>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K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가을동화] 대본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실었다.

<sup>3</sup>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형용 동사로 취급하므로, 동사의 범주에 넣어 처리한다.

수 있는 예문들이다.

## 2.2 의미론적 연구

의미론적 연구에서는 주로 ‘그리고’가 들어간 문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기열(2003)에서 ‘그리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2) a. 계기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학교로 갔다.
- b. 이유  
영이는 그 소설을 읽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다.
- c. 나열  
너는 남자이다. 그리고 나는 여자이다.
- d. 대립  
이것은 꽃이다. 그리고 저것은 꽃이 아니다.
- e. 전환  
조금 전까지 소나기가 내렸다. 그리고 지금은 활짝 개었다.
- f. 동시  
해가 넘어갔다. 그리고 어둠이 깔렸다.

장기열(2003)에서는 ‘그리고’를 접속부사로 분류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의 앞뒤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가 모든 상황에서 여섯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의 예문들을 ‘그리고’를 쓰지 않고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 a. 철수는 밥을 먹고 나서 학교로 갔다.
- b. 영이는 소설을 읽어서 슬픔에 잠겼다.
- c. 너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다.
- d. 이것은 꽃이지만 저것은 꽃이 아니다.
- e. 조금 전까지 소나기가 내렸는데 지금은 활짝 개었다.
- f. 해가 넘어가면서 어둠이 깔렸다.

#### 4 강우순

(3c)와 (3d)를 빼고 모두 종속절로 바꿀 수 있는 구문이다. 등위구조의 경우 나열과 대립의 관계를 가지며, 나머지는 계기, 이유, 전환, 동시 등은 종속절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를 쓰기보다는 종속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종속절이 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3 화용론적 연구

화용론적 연구는 신현숙(1989), 김태엽(2000), 김향화(2004)에서 고찰하고 있다. 신현숙(1989)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를 살피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을 [-거리]와 [+연속]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것을 ‘그리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sup>4</sup> 신현숙(1989)에 의하면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4) 그리고 [-거리], [+연속]

그러나 (2)에서 보여주는 모든 예문들을 위의 속성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엽(2000)과 김향화(2004)는 담화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리고’가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김태엽(2000)에 의하면 한국어의 ‘그리고’는 접속 부사이므로 담화표지의 하나로 분류되어 질 수 있으나, 김향화(2004)의 담화표지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가 기능 전이가 일어나거나 기본적인 의미변화가 있거나, 수의적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담화표지로 분류될 수 없다.

<sup>4</sup> 신현숙(1989)에서는 ‘그래서’와 ‘그러나’를 [-거리]로 ‘그러니까’와 ‘그렇지만’을 [+거리]로 분류하고 ‘그래서’와 ‘그러니까’를 [+연속]으로 ‘그러나’와 ‘그렇지만’을 [-연속]으로 분류하였다.

<sup>5</sup> 김향화(2004)에서는 담화표지의 식별의 기준으로 (1) 기능전이 (2) 의미변화 (3) 수의적 요소를 들고 있다.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i) 가, 가만, 거, 거시기, 무슨, 뭐, 아니, 어디, 왜, 웬, 있지, 저, 저기, 참나, 뭘, 말이야, 뭐야, 뭘가하면, 있잖아

김태엽(2000)에서는 부사어도 담화 표지로 사용될 수 있음을 논하고 있으며, 영어의 ‘and’는 Schiffrin(1982)에서 접속 표시어의 하나인 부가 표시어(additive marker)로 담화표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 3.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의 ‘그리고’

핵어중심 구구조문법에서 ‘그리고’를 다룬 것은 김종복(2004)이다. 김종복(2004)에 의하면 ‘그리고’는 접속사로 분류되고, 등위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문장 접속에서 ‘그리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등위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명사구 접속의 경우임을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가 접속의 기능도 하지만, 부사의 기능도 함을 인식하고 그것에 알맞은 분석을 하는 도구를 찾아야 한다. 핵어중심 구구조문법에서는 어떤 한 형태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다중 위계(multiple inheritance)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가 접속사의 기능도 있을뿐아니라 접속 부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 3.1 유형분류

‘그리고’는 통사적으로 분류하면 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볼 수 있다.

<sup>6</sup> 핵어중심구구조문법에서 ‘그리고’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리고’를 접속사로만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고’를 접속사와 부사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를 접속사로 분석하는 것은 김종복(2004)에 다루어져 있다. ‘그리고’를 접속사로 보고, 등위구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경우, 같은 범주끼리의 접속 구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를 접속사로만 분석할 경우, 같은 형태를 같은 범주로만 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가 문맥 중심 언어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장을 자질구조 어디에선가 가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문장 단위를 넘어 분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앞서 있는 문장을 바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 이어서 쓰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등위 규칙을 설정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등위구조라는 것은 같은 범주를 연결해주는 것인데, 같은 구조가 아닌 것을 접속하는 것을 등위규칙이라고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분석에서는 표면구조를 따라 ‘그리고’가 접속하는 기능을 할 경우 접속사로, 문장 맨 앞에 위치할 때는 부사로 다룬다.

같은 어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표면구조만을 중시할 경우, 한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다루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표면구조에 충실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보다, 문법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를 접속사로 다룰 경우, 이미 있는 등위규칙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그리고’를 부사로 분석할 경우, 이미 문법 내에 수립되어 있는 핵어-수식어 구조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표면구조에 따라 ‘그리고’를 접속사와 부사로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은 분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6 강우순

(5) 접속사의 기능

- a. 준서 그리고 경하가 그곳에 앉아 있다.
- b.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그들은 뛰어 갔다.
- c. 은서는 먹고 그리고 갔다.

(5)의 예문에서 보여주는 ‘그리고’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5a)는 명사와 명사 접속을 보여주고 있고, (5b)는 부사와 부사의 접속을 보여준다. 그리고 (5c)는 동사구 접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5)에서 보여주는 ‘그리고’는 같은 범주를 접속하는 접속사이다.

그러나 ‘그리고’는 접속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료상 나타나듯이 명사를 연결할 때 ‘그리고’가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그리고’는 문장의 처음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리고’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하지만 통사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끄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7</sup>

(6) 부사의 기능 (2의 예문을 다시 씀)

- a. 계기  
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학교로 갔다.
- b. 이유  
영이는 그 소설을 읽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다.
- c. 나열  
너는 남자이다. 그리고 나는 여자 이다.
- d. 대립  
이것은 꽃이다. 그리고 저것은 꽃이 아니다.
- e. 전환  
조금 전까지 소나기가 내렸다. 그리고 지금은 활짝 개었다.
- f. 동시  
해가 넘어갔다. 그리고 어둠이 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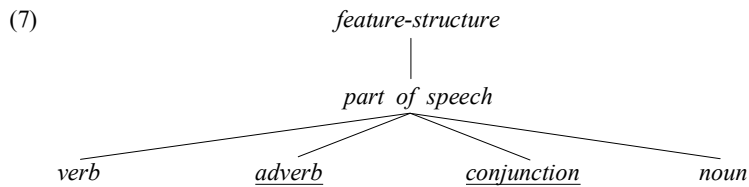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는 문장을 이끄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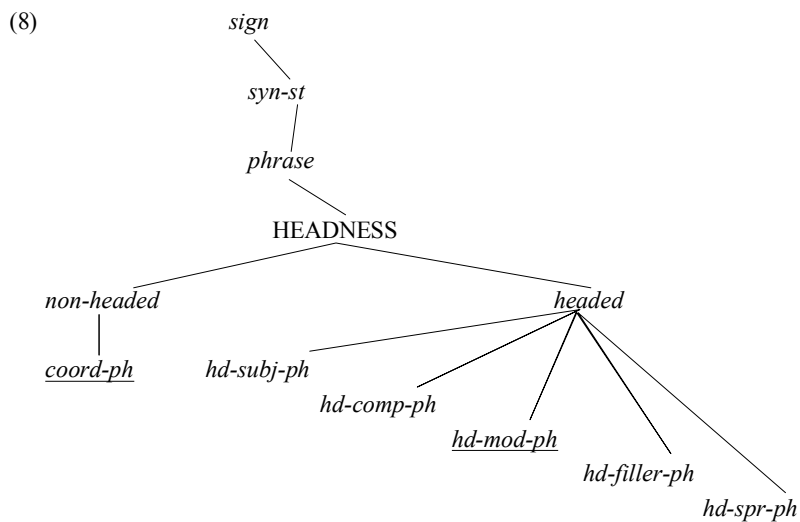
7 (5)의 예문은 문장과 문장을 ‘그리고’가 연결하고 있는 형식이어서, ‘그리고’를 접속사로 분석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리고’의 쓰임을 보면 문장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 문맥 전체를 받을 때도 있고, 전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종류의 등위 접속 구조를 만들어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있다. 접속 부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보이고 있다. 통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는 부사의 역할을 하며, 문장을 이끄는 것으로 보여 부사로 분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는 유형 분류에서 접속사와 부사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형분류 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질구조(feature structure)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품사(part of speech)이다. ‘그리고’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속사이면서 부사임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유형 위계 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범주로 분석되는데, 하나는 부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접속사이다. 부사일 경우, ‘그리고’가 문두에 오는 것이 표면구조상의 특징이며,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는 ‘그리고’ 앞 뒤로 같은 범주가 올 때이다.



위의 유형표<sup>8</sup>에 따르면 ‘그리고’는 접속구조와 핵어-부가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함을 볼 수 있다.

*sign* 내에는 통사구조가 있고, 통사 구조 내에 절이 있는데 절은 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 등위구는 핵어가 없는 것으로 보며, 나머지 절들은 핵어가 있는 구조로 파악되게 된다. 따라서 ‘그리고’가 접속사로 분류될 때는 등위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가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핵어 부가어구로 분석된다.

### 3.2 규칙

‘그리고’의 유형에 따라서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리고’가 접속사로 쓰이면 등위규칙을 사용하고, ‘그리고’가 부사로 쓰이면 핵어-수식어 규칙이 사용되어 집을 3.1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를 같은 범주끼리의 접속은 등위구조 규칙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그리고’는 접속사로, 같은 범주는 등위어로 분석되어 진다. 접속구조는 다음과 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sup>9</sup>

#### (9) Head-Coord(ination) Rule

$$XP \begin{bmatrix} \text{coord-ph} \\ \text{INDEX [2]} \\ \text{VAL [1]} \end{bmatrix} \rightarrow XP+[\text{VAL [1]}, \text{Conj}[\text{INDEX [2]}, XP[\text{VAL [1]}]]$$

(9)의 규칙을 살펴보면, XP는 같은 범주를 나타내고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된 XP는 결국 같은 범주 XP로 실현되어 항가(VALENCE)는 [1]로 같고 의미는 포함되어 나오므로 INDEX는 [2]가 된다.

‘그리고’가 부사로 쓰일 경우 표면구조상 ‘그리고’는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어로 주로 문장이 뒀을 볼 수 있다. 핵어-수식어 구조는 다음과 같다.

<sup>8</sup> *syn-st*: syntactic structure (통사구조); *coord-ph*: coordination phrase (등위구); *hd-subj-ph*: head subject phrase (핵어 주어구); *hd-comp-ph*: head complement phrase (핵어 보어구); *hd-mod-ph*: head modifier phrase (핵어 수식어구); *hd-filler-ph*: head filler phrase (핵어 보충어구); *hd-spr-ph*: head specifier phrase (핵어 명세어구)

<sup>9</sup> 김종복(2004)의 접속 구조를 그대로 신는다.



(10) Head-Mod(ifier) Rule<sup>10</sup>

$$XP \rightarrow [\text{MOD} < \boxed{1} >], \boxed{2}H$$

(10)은 수식어(modifier)가 핵어(Head)를 선택하는 것으로 부사 ‘그리고’가 문장을 취하는 구조이다.

‘그리고’가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는 같은 범주를 거느리는 접속사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가 문장을 이끄는 부사어로 사용되어 질 때는 접속사의 기능도 하지만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접속 부사의 기능이 강한 ‘그리고’는 다른 부사와 차이를 보여 준다. 다른 부사들은 문장 어디에 와도 가능한 문장을 생성하지만 ‘그리고’의 경우 항상 문장 앞에 와야 한다는 제약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그리고’가 접속사로 쓰이고, 접속부사로 쓰일 경우 비슷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명사의 경우 ‘그리고’로 접속되었을 때, 명사가 나열되고, 덧붙여지는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동사와 문장이 ‘그리고’로 접속될 경우, 문맥에 따라 접속 부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전후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대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가 접속 부사로 사용될 경우, 위의 예문에서는 항상 하나의 독립

<sup>10</sup> 김종복(2004)에서는 Head-Mod Rule을 A와 B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수식어에 있는 문법격이 목적격인지 주격인지에 따라서 행동성(Agentivity)를 달리해 보이고 있다.

i.

$$[\text{hd-mod-ph}]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MOD} < \boxed{1} > \\ \text{CASE}[\text{GCASE } \textit{acc}] \end{array} \right], \boxed{1}H[\text{HEAD} | \textit{AGT} +]$$

(i)의 경우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핵어가 [AGT +] 자질을 가지는 경우, 이 부사의 문법격 정보는 *acc*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원빈이 [한 시간을 [자전거를 신나게 탔다]]’라는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

ii.

$$[\text{hd-mod-ph}]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MOD} < \boxed{1} > \\ \text{CASE}[\text{GCASE } \textit{nom}] \end{array} \right], \boxed{1}H[\text{HEAD} | \textit{AGT} -]$$

(ii)는 [AGT -]로 *nom*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시간을 [원빈이 신나게 자전거를 탔다]]’라는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

적인 문장 뒤에, ‘그리고’와 독립적인 문장이 쓰여서 ‘그리고’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앞 문장 없이 ‘그리고’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책 제목에서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 많은 책 제목이나 기사 제목들이 ‘그리고’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문장이 명시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독자나, 청자가 문맥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3.3 ‘그리고’ 분석

HPSG에서 ‘그리고’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러나’를 접속사로만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의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의 분석은 김종복(2004)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분석을 좀 더 확대하여 적용 분석하고자 한다.

(11)<sup>11</sup>

$$\left[ \begin{array}{l} \text{PHON} <\text{그리고}> \\ \text{SYN} \left[ \begin{array}{l} \text{HEAD|POS} \text{ conj} \\ \text{VAL} \left[ \begin{array}{l} \text{SUBJ} \langle \rangle \\ \text{COMPS} \langle \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SEM} \left[ \begin{array}{l} \text{INDEX} \\ \text{RESTR} \left\langle \left[ \begin{array}{l} \text{RELN} \text{ and} \\ \text{ARG0} \text{ s0} \\ \text{ARGS} \langle s1, s2, \dots \rangle \end{array} \right] \right\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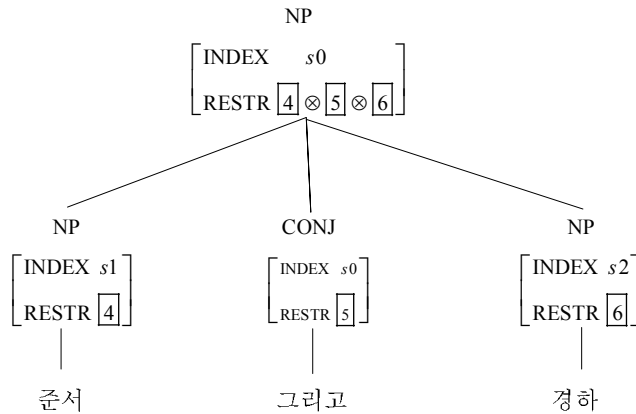
(11)을 살펴보면 음운은 ‘그리고’이고 통사에서 핵어 자질로 품사가 접속사이며, 향가는 주어와 보어가 모두 비어 있다. 의미에서 관계는 ‘and’이고 논항이 모두 합쳐진 것은 s0이며 다른 논항들은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올 수 있다.

(11)은 ‘그리고’는 접속사로 쓰이는 자질구조이다. 명사구 접속을 하는

<sup>11</sup> PHON: phonology; SYN: syntax; POS: part of speech; conj: conjunction; VAL: valence; SUBJ: subject; COMPS: complements; SEM: semantics; RESTR: restrictions; RELN: relation; ARG: argument

예문을 살펴보면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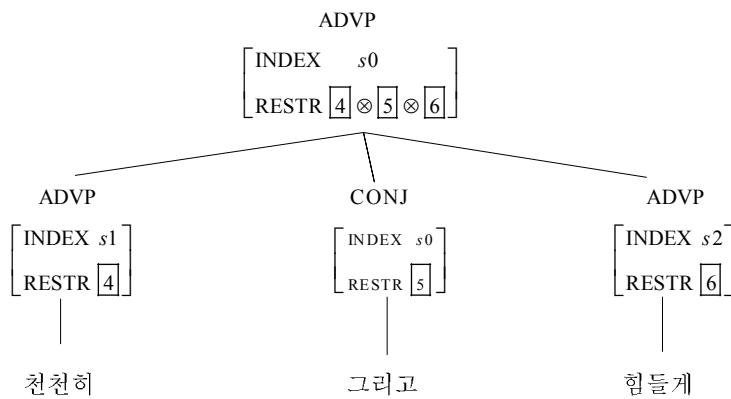
(12) 준서 그리고 경하



(12)는 ‘준서’와 ‘경하’라는 NP를 ‘그리고’로 접속한 형태이다. 접속규칙을 적용하면 (12)와 같은 분석이 된다. 접속사 ‘그리고’가 NP를 연결하는 형태이다. INDEX는 s0로 ‘그리고’의 INDEX가 상위에 오게 된다. ‘준서’와 ‘경하’의 의미가 합쳐져서 RESTRICTION의 값은 [4]⊗[5]⊗[6]이 된다.

다음은 부사가 접속되는 문장을 살펴보겠다.

(13)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그들은 뛰어 갔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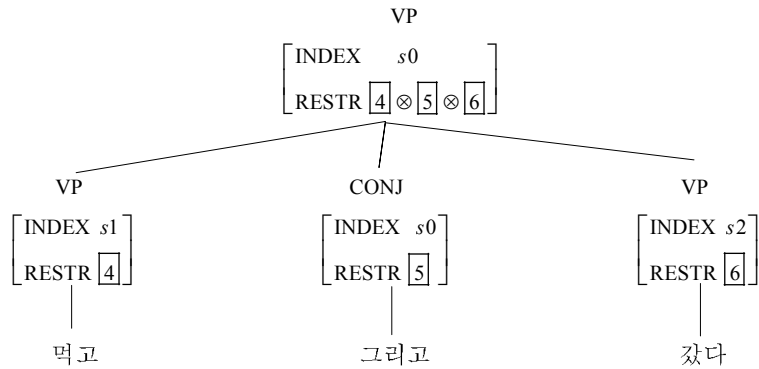


<sup>12</sup>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뛰어 갔다’라는 문장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13)은 부사구 접속이다. 등위규칙이 적용되며 의미는 상위 노드에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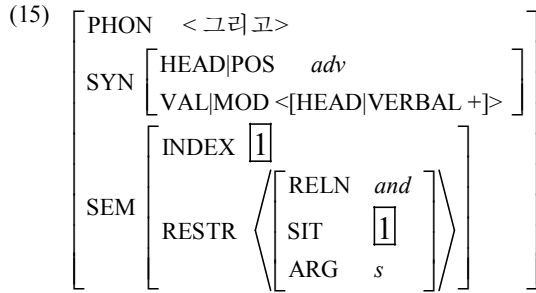
다음은 동사구끼리의 접속이다.

(14) 은서는 먹고 그리고 갔다.



등위규칙으로 (14)의 문장도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그리고’가 부사로 쓰일 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사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자질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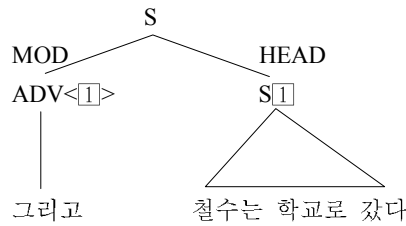


(15)는 같은 ‘그리고’지만 핵어의 품사가 부사이고, ‘그리고’가 수식하는 것은 문장 혹은 동사구가 될 수 있다.<sup>13</sup> 의미에서 관계는 ‘and’이고 이것은

<sup>13</sup> ‘그리고’가 부사로 쓰일 경우 보통 문장이 오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구만 나타나기도 하므로 (15)와 같은 자질구조가 가능하다.

상황과 관련이 있게 된다.<sup>14</sup>

(16) 그리고 철수는 학교로 갔다



(16)에서 보듯이 ‘그리고’는 문두에 사용되어 부사로 쓰이고 있다. 수식어 핵어 구조의 적용을 받아 (16)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가 앞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부사로 분석하는 근거는 ‘그리고’가 앞 문장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 제목에 있어서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아무런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그리고’를 쓸 수 있음을 볼 수 있다.<sup>15</sup>

####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를 HPSG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표면구조를 중심으로 보고, 표면구조에 따라 ‘그리고’를 접속사와 부사로 각각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할 경우, 다른 규칙의 생성도 필요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와 관련된 ‘그러나’의 다른 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어휘들의 처리가 용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그러나’의 경우 부사적인 속성이 강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sup>14</sup> 이 논문에서는 의미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sup>15</sup> ‘첫해는 팬들이나 도민들에게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는데 노력하고 2년째는 안정된 팀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3년째는 우승을 포함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상위권에 도전해볼 계획이다’(인터넷중앙일보 기사)라는 식의 문장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다.

- (17) 요즘 현대차.두산.대림.동양화학 등에서 3세들이 속속 사장단에 오르는 것을 보며 문득 구 명예회장의 얘기가 생각났다. 2세 승계가 활발했던 1970~80년대 재계엔 이런 얘기가 많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도 호된 경영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과문인지 모르겠지만 후계자 수업을 혹독하게 시키고 있다는 기업 얘기는 최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3세 승계에 대해 말들이 많은 터다.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은 경영권 세습을 힘들게 하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친재벌론자들도 3세 승계에 대해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sup>16</sup>

(17)의 예문을 보면, ‘그러나’가 단락의 처음에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뿐 아니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등의 부류도 동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현. 1998. 국어 품사 분류 연구.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 10집 제 1호. 23-52.  
김미선. 1998. 접속부사연구 (III). 어문연구 제98호. 35-49.  
김종복. 2004. 한국어 구구조 문법. 한국문화사.  
김태엽. 2000. 국어 담화표지 유형과 담화표지 되기. 우리말글 제19집. 1-23.  
김향화. 2004. 담화표지의 식별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9-14.  
남기십. 199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Vol. 10. 69-77.  
박소영. 2002.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 제34호. 49-73.  
신현숙. 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국어학 19. 427-451.  
안주호. 2002. ‘그리고’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76호. 1-21.  
오수연. 2000. 가을동화 대본. KBS 미니시리즈.  
유현경. 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Vol. 16. 333-352.  
임유정, 박동호, 홍재성. 2001.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성. 언어학 제28호. 177-209.  
장기열. 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복지행정연구. Vol. 19. 175-194  
장정준. 1983. 접속사 「그리고」 연구. 어문학교육 제6집. 211-242.

---

<sup>16</sup> 인터넷중앙일보 사설에서 뽑았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130-701  
E-mail: wkang@khu.ac.kr

접수일자: 2005. 04. 07

게재일자: 2005. 06. 10